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민생·재난안전 선제 대응

무주·옥천·장수·함양·산청·하동·남해 7개 군,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달 29일 함양군청에서 충청북도 옥천군(군수 황규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군수 최훈식), 경상남도 함양군(군수 진병영)·산청군(군수 이승화)·하동군(군수 하승철)·남해군(군수 장충남)과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과보고와 협약서 서명, 공동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 협약은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철도노선 부재 지역의 발전과 교통 소외 해소, △덕유산권, 지리산권, 남해안권을 잇는 관광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안에는 △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자료 공유, △지역개발 관광 활성화 후속 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 대전~남해선 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주군을 비롯한 7개군 대표들은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덕유산·지리



무주군은 지난달 29일 함양군청에서 충청북도 옥천군(군수 황규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군수 최훈식), 경상남도 함양군(군수 진병영)·산청군(군수 이승화)·하동군(군수 하승철)·남해군(군수 장충남)과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건의문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은 그동안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돼 지역발전, 인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라며 "7개 군의 절실함이

가져온 오늘의 연대가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의암 주논개 추모제 제례봉행 거행

장수군은 '제432주기 의암 주논개 추모제'가 순국일인 지난달 29일(음력 7월 7일)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지에서 거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신안주씨·해주최씨 종친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례봉행 예식에 앞서 현시낭송, 논개충절무 공연이 이어졌고 김종문 어울림화장의 약사보고와 한병태 문화

원장의 추모사 낭독이 있었다.

이어 초헌관은 최훈식 장수군수, 아헌관은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오재영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다헌관은 유경자 장수군의회 부의장이 맡아 총절의 표상인 주논개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와 헌공다례를 올렸다. 의암 주논개는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탄생, 1593년 6월 남편 최경희 현감을 따라 진주성 전투 참전 중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군 승전연에 참석,



매장을 꺼내고 진주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이에 군은 매년 음력 7월 7일 논개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를 지내 오고 있다. 이번 제례는 논개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태권도 수련생 대상 '글로벌 캠프' 개최

무주군은 오는 9월 21일까지 주말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2025 글로벌 태권도 캠프가 덕유산 리조트 유스타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총 4차례에 걸

쳐 진행되며 무주 반딧불·지성태권도장을 비롯해 국내 태권도 수련생 1천2백여 명(회차별 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30일과 31일 열린 1차 캠프에는 전국 11개 태권도 도장에서 263

명이 참가하여 태권도 시범 공연과 명사 특강, 태권도 세미나, 태권올림픽, 태권 DJ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또한 덕유산 곤도라 체험, 설천호수 트레킹, 태권어드벤처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26억원 규모 생활밀착형 추경 추진

진안군은 민생안정과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 126억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추가경정예산(3회 추경)'을 전격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소외계층과 재난안전 취약 군민을 정조준한 선제 대응형 예산으로 눈길을 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총사업비 76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주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지급한 국비액에 이어, 이번 2차분 지급까지 포함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숨통 트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본격적인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다.

빗물받이 정비 및 관로준설(1억8천만원), 폭염대비를 위한 그늘막설치 및 살수차 추가 운영·한해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양수기 구입·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3억1000만원)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이 짙게 반영됐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냉감아발 지

원' 사업이다.

이는 진안군이 인근 시군보다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를 2배 이상 확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재난 대처를 넘어 '체감형 복지'를 포함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3억5000만원의 재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751농가에 폭염대비 스프링클러 등 관수 장비를 지원해 농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군은 상반기 정기교부 특별교부세 14억을 확보해 월량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비비 9억2000만원도 확보해 앞으로 긴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전준성 군수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군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진안읍 학천1동마을 주민좌담회 실시

진안군은 지난달 27일 학천1동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학천동 주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좌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좌담회는 학천지구 통합개발사업, 월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산지구 도시 새마을사업 등 학천동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배경, 사업의 필요성 등 지역 발전의 구상안을 설명하고 개발지역과 인접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학천지구 통합개발사업은 201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완료된 학천지구에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온가족다움마루, 복합플랫폼광장, 주차장(이)연계된 통합된 복합문화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넓은 광장과 문화예술공간을 갖춰 사람이 모이고 어우러지는 진안군의 랜드마크 만들 계획이다.

△월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복개발공사와 협력해 진안읍 진안선거관리위원회 일원 72,847㎡(22천평) 규모로 공동 및 단독주택 600여 세대와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확장의 새로운 발판 마련과 도심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구 도시 새마을사업은 진안향교 주변의 개발 제한으로 낙후된 주거 여건인 학천1동·노계2동 마을의 노후주택 정비와 재해위험 사면정비·골목길 정비 등 기초생활SOC 개선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학천동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확보와 주택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마을 활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전준성 군수는 "진안읍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사업기획과 설계, 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 요리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19회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3가지 요리만들기 체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리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 매일 오후 1시, 종합운동장 메인무대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 둘째 날인 19일에는, '아빠와 함께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가 열려 기본 재료를 활용하고, 여기에 직접 준비한 재료를 더해 자신만의 특별한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날인 20일에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 이모카세 1호, 만썰남이 진행하는 '데드푸드 요리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장수 한우와 사과, 토마토를 활용한 소불고기뎃밥과 사과, 토마토 샐러드를 함께 만든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사찰음식 장인 정효승님과 함께 '데드푸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이 열려 함께 건강에 좋은 연잎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국농어촌공 무진장지사 건설현장 21개소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2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석) 12대 핵심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병방장지,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 실태도 점검했다.

무진장지사는 특별점검을 통해 21개 현장을 전수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4개소 현장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절·성토 사면 상태와 지반 침하 위험도 함께 점검하여,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